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공병혜**

주제분류 현대철학, 탄생철학

주요어 탄생, 탄생성, 철학, 아렌트

요약문

인간의 탄생이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삶의 시작이며,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기도 하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 이래 탄생에 대한 사유보다는 오히려 죽을 운명으로서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사유에 주로 몰두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출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인간탄생의 제작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이래 인간 탄생과정에 대한 윤리적 이슈뿐만 아니라, 인간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우리 시대의 사유로 요청받고 있다. 탄생철학은 이 세상에 시작한 탄생한자로서의 운명을 오히려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근본 조건으로서 사유한다. 그러나 ‘탄생으로 되돌아감’의 사유는 탄생한 자의 존재물음과 관계된 실존적 사유뿐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탄생의 강제성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탄생한자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탄생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시작으로 자유 사이에서 사유의 긴장을 일으킨다. 탄생철학은 이 태어남의 강제성과 탄생한자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사이의 긴장과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권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역사의 지속이라는 문제의 지형을 지닌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탄생의 강제성보다는 칸트의 이성비판에서 논의된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자유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인간창조에 대한 실존 철학적 해석을 결합시킨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을 중심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5S1A3A2046905).

** 조선대학교

에 두고자 한다. 오늘날 생명공학과 출산기술에 의한 인간 탄생의 계획적 강제는 더욱 강화되어가고 삶의 도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의 정신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논문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탄생성이 함축하고 있는 스스로 새롭게 시작함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탄생에 대한 사유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서론)

인간의 탄생이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삶의 시작이며,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기도 하다. 인간의 탄생을 인류역사에서 신화나 종교, 예술 등에서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 이래 서양 철학은 탄생을 사유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연습, 혹은 죽을 운명으로서의 인간의 조건에 대한 사유에 주로 몰두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공학과 의료 기술이 인간의 생명과 출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인간탄생의 제작이 가능해 지기 시작한 이래 인간 탄생과정에 대한 윤리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 그 자체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우리 시대의 사유로 요청받고 있다¹⁾.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실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탄생은 모든 삶의 시작을 위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탄생철학은 인간의 ‘죽을 운명’ 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 ‘탄생한 자’로서의 운명을 오히려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근본 조건으로서 사유한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는 존재는 삶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생으로 되돌아감’의 사유는 탄생한 자의 입장에서의 자신의 존재물음과 관계된 실존적 사유뿐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시작된 탄생의 강제성에 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탄생한 자 스스로 동의하지도 체험할 수도 없는 탄생의 기원은 바로 탄생 그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자유와의 첨예한 사유의 긴장과 균열을 야기 시킨다. 이 세상에 들어온 시작한 자로서 탄생한자는 이미 시작된 탄생한 자들 사이에 새롭게

1) 생명공학기술, 유전자기술, 의료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넘어서 탄생자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바로 우리 시대의 과제이며 철학적 명령인 것이다(Ludger Lütkehaus, *Natalität Philosophie der Geburt*, Kusterdingen, 2006, 10쪽 참조).

끼어든 존재이다. 탄생철학은 이 태어남이 지닌 강제성과 탄생한자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사이에서 균열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철학은 바로 창조자 혹은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권리, 탄생의 강제성과 새로운 시작으로 자유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역사의 지속이라는 문제의 지형을 지닌다.

서양 역사 속에서 나타난 탄생철학은 인식의 방법으로 철학적 산파술을 실천한 소크라테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는 탄생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던지지 않았다. 인간 탄생에 대한 실존적 물음은 이 세상에 비자의적으로 태어난 인간 탄생의 기원과 강제성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우선 ‘삶의 선물’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탄생에 대해 긍정적인 서구의 전통적 은유와 그리고 이에 비판적인 탄생철학의 입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칸트는 『실용적 관점에서 인간학』 『윤리형이상학』 등의 저서에서 탄생을 지닌 강제성과 그리고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에 대한 이념, 부모의 의무와 자식의 권리를 결합시킨다. 인간탄생의 강제성에 대한 항의로서 아이의 최초의 울음을 결핍된 인간 자유의 표현이라고 이해한 칸트의 사유는 한나 아렌트 철학의 핵심사유인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의 능력으로서의 탄생성과 만나게 된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사실적 탄생을 지닌 강제성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새로운 시작으로의 인간창조에 대한 실존 철학적 해석을 탄생성이 내포하고 있는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자유의 의미와 결합시킨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 오늘날 생명공학과 유전자기술 그리고 인공수정 등에서 인간 탄생과정에 개입하는 제작기술에 의한 인간 탄생에 대한 계획적 강제는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논문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탄생성이 함축하고 있는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행위의 의미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탄생에 대한 사유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서양역사 속에 나타난 탄생에 대한 철학적 사유

1) 탄생의 강제성

서양 역사 속에서 인간 탄생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²⁾ 그리고 탄생 그 자체가 지니는 실존적 의미로부터 탄생한 자와 탄생하게 한 자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탐구해 보기로 한다. 탄생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탄생이란 존재론적 사건이며 동시에 유일하게 그 이전에도 없었던 ‘누군가’로 이 세상에 새로 온 자의 시작이며, “스스로 시작 한다”라는 강한 자발적인 행위의 의미를 부여한다.³⁾ 그러나 인간의 탄생이란 본질적으로 탄생한 자 스스로 체험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되돌림이 있을 수 없는 궁극적인 것, 즉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탄생은 물론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탄생한 자 스스로가 아닌 비자의적으로 세상에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탄생이 지닌 타자 규정성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오는 것과 구분되며, 그래서 인간은 이미 시작된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부정할 수 있는 것이다.⁴⁾ 탄생철학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전에 탄생한 자의 입장에서

2) 소크라테스는 인식의 탄생을 도와주는 철학적 산파술을 통해 탄생철학의 실천가가 되었지만, 그의 산파술은 실제 인간 탄생이라는 실존적 영역이 아니라 철학적 방법의 영역으로 적용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철학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창안한 인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인식의 탄생을 도와주는 산파역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도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사건은 죽음을 자연의 숙명이 아니라 죽음의 자유를 연습하는 죽음의 철학을 탄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Ludger Lütkehaus, 같은 책, 17-18쪽).

3) Hannah Arendt,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Zürich 1981(이하에서 VA로 표기, 역서는 『인간의 조건』(이진우 역, 한길사 1996)을 참고함). 이 글에서 탄생은 한편으로 존재론적 사건으로서 태어남의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탄생성은 탄생으로 인해 스스로 시작하는 행위로서의 자유의 능력으로 해석된다.

탄생의 강제성(Diktat)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자신을 생식한 자가 없이는 시작하는 자로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생의 원인이 되는 자에 대해 탄생한 자는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자, 혹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분명 탄생 그 자체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의 이유나 의미를 물을 수 없는 너무도 자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명백한 강제적인 성격이 탄생철학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주제인 것이다. 여기서 탄생의 강제란 엄밀히 말해 존재한다는 실존적 사실이 마치 운명처럼 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타자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창조주나 부모의 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탄생하지 않은 존재에게 미리 동의를 구할 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에서 탄생은 죽음과도 구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생한 자는 자신의 탄생의 이유나 의미에 대해 묻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탄생철학은 이러한 탄생의 타자규정성을 전제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창조설을 옹호하는 유대인의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원죄설 그리고 탄생을 업보로 생각하는 동양의 윤회설과는 거리를 둔다. 특히 윤회설에서 전개된 업보란 탄생의 강제를 하나의 자기원인에 의한 행위의 결과로 전도시킨다. 윤회설에서는 자신의 탄생이란 자기 스스로 부과된 대물림된 죄의 결과이며, 그래서 이것이 지닌 사회적 기능은 아무리 자신의 실존이 부당하게 고통스럽다할 지라도, 그것을 전생부터 이어지는 도덕적인 결과로 여기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탄생 철학은 근본적으로 탄생한 자의 시작함과 유일성을 근거로 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세상에 탄생한 존재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겨질 수밖에 없다.⁵⁾ 그래서 이러한 탄생의 강

4) Peter Sloterdijk, *Zur Welt Kommen, Zur Sprache Kommen Frankfurter Vorlesungen*. Ffm., 1988, 44쪽 참조.

제성은 특히 현대의 실존 철학에서 인간 자유의 물음을 일으킨다. 특히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 인간 현존재는 이미 “내던져진 존재”(geworfenes Sein)로서 탄생의 강제를 보여준다.⁶⁾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로서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이며, 그 자신 스스로에 의해 ‘거기에’있는 것이 아니다. … 실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던져짐 뒤로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그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고유한 존재의 전적인 무력함”이라고 말한다.⁷⁾ 사르트르는 자신의 탄생의 철학에서 탄생한 자가 스스로 요구하지도 않은 탄생은 자유에 대한 일종의 ‘스캔들’이라고 말한다. 즉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 책임이 없는 ‘대자적인 존재’는 ‘자유’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자유로운 죽음의 가능성은 나의 탄생이란 강제를 깨는 유일한 것이다. 자유로운 죽음이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탄생을 스스로 끝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자적 존재가 스스로 자기 자유라는 사태로 만드는 사건인 것이다.⁸⁾

2) 탄생의 거부와 금욕

이렇듯 탄생을 지닌 강제성은 자신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탄생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서구의 존재론에서 ‘존재’와 ‘선’은 다산성의

5) L. Lütkehaus, 같은 책, 69-70쪽 참조.

6)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분석에 있어 ‘거기 있는 존재’의 성격은 ‘세계내 존재’방식으로 ‘내던져진 존재’인 것이다(M.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Tübingen 1984, 135쪽 참조). 세계 안에 ‘내던져진 존재’와 죽음을 향해 ‘기투 하는 존재’에 대한 긴장관계는 한나 아렌트철학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으로 가는 존재”로서 실존적 자기 이해는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자유의 가능성을 지닌다.

7) M. Heidegger, 같은 책, 284쪽

8) Jean-Paul Sartre, *Das Sein und das Nichts: Versuch einer Phänomenologischen Ontologie*, Hrsg. Traugott König, Deutsch von Hans Schöneberg und Traugott König, Reinbek 1995, 954쪽.

원리에 따라 비례하며 탄생은 원칙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의 존재론은 자녀들의 탄생이란 주는 자의 ‘삶의 선물’로서 ‘세계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은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선물’과 ‘세계의 빛’이라는 탄생에 대한 전통적인 은유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고통스럽게 탄생하여 죽음을 향해 가는 유한한 삶의 특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실존적 사색과는 동떨어져 있다. 아이는 힘든 탄생의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비좁은 통로와 어두움 길을 통과하여 빛을 보지만 탄생 이후 너무도 밝고 넓은 빛과 차가움의 충격에 지체 없이 내맡겨진다. 전통적 은유에 따라 탄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선한 것이고 선물이어야 한다면, 인간 삶의 고통은 정당화되어야 했고, 그래서 기독교의 원죄설은 탄생한 자는 본래 아담처럼 죄의 대가로 정당하게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고통을 변호해 왔다.⁹⁾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변신론은 삶의 고통이 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왜 탄생한 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죄의 대가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생철학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삶을 과연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상에 내던져진 삶의 고통에 대해 항의하는 탄생한 자들은 자신의 제작자 또는 창조주에게 현존재의 근원을 향해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우스트와 햄릿, 욕, 바울은 창조주로서의 기독교적인 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거부하고 삶의 고통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현존재를 완전히 부정한다. 신을 로고스적 질서의 창조주로 바라보는 파우스트는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서 로고스적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파우스트는 “태초부터 아예 아무

9) 기독교의 변신론적인 핵심교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인류의 구원에 있다. 즉 그리스도가 인류의 원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을 받은 공적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봉호, 『고통 받는 인간』, 서울대출판부, 1996, 174쪽.

것도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⁰⁾ 또한 햄릿에게 모든 삶과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그에게 가장 추구할 만한 것은 종말이며, 모든 탄생한 것은 죄 없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합리한 것은 탄생이다. 더 나아가 햄릿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햄릿은 자살 이외의 모든 행동을 무로 침몰시키면서 기원과 탄생에 대해 종말을 고한다. 옴은 창조주인 신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탄생 자체에 대한 거부로 나아간다. 탄생으로 고통 받고 죽음만이 안식처가 될 뿐이지만, 죽음을 원하는 것마저 옴은 금지 당한다. 신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으려는 통로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창조주의 논리를 따르는 바울은 신의 은혜나 무자비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창조주의 독단성만이 타당하며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원인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면 피조물은 오로지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¹¹⁾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창조주나 무로부터의 창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탄생한 자들은 삶의 고통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창조주에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더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던진다. 그들은 삶의 공포와 경악을 알고 있었다. 삶은 무로부터 무로 향해갈 뿐이라는 깊은 비극적 허무주의는 가장 좋은 것은 “탄생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현자 실레노스의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¹²⁾ 이러한 그리스 비극의 탄생에서 고통스러운 삶

1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정서웅 역(서울: 민음사, 2015), 62쪽 참조.

11) Ludger Lütkehaus, 같은 책, 94-97쪽 참조.

12) 그리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의 동반자인 현명한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최선책은 그대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네. 탄생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책이 있다면 그것

의 불행은 탄생 그 자체로부터 파악된다. 즉 탄생철학이 곧 죽음의 철학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쇼펜하우어와 그의 후계자들은 탄생을 거부하는 금욕에 대해 다룬다. 그들은 삶이 선물이 아니고 또한 빛이 아닌 세상 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 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묻는다. 쇼펜하우어 후계자인 필리프 마인렌더는 탄생을 통해 지속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지속적인 생식에 중지부를 찍고, 금욕을 수행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형이상학』에서 쾌락이 주는 혜택이란 지속적으로 인류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성적인 이성의 간계라고 폭로한다. 그에게서 삶의 충동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다. 그중 인간의 성욕이야말로 가장 강한 삶의 충동의 표현으로서 개체보존을 위한 생식을 통해 새로운 개체로 넘어가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종족 보존의 장치가 된다.¹³⁾ 유한한 인간은 성충동을 통해 생식을 함으로써 삶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욕망의 수레바퀴에 빠지게 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¹⁴⁾ 부모의 생식으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육체적 존재의 사멸성에 대한 불안과 자기 보존의 강한 이기심 사이에서 시달리면서도 성충동을 통해 새로운 타자를 생식하는 것이다.¹⁵⁾ 인간의 성충동은 개별자의 사멸과 새롭게 태어나는 개별자 사이에서 지속 되는 생존투쟁의 고통을 인류의 본질로서 지속시킨다. 그래서 쇼펜하

은 바로 죽는 것이네.”라고 대답한다(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이진우 옮김, 니체전집 2, 책세상, 41쪽 참조).

13) A. Schopenhauer,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II*. Band IV, zweister Teilband, in; Zürcher Ausgabe, Werke in zehn Bände, Zürich 1977, (이하 약칭 W.II), 661쪽.

14) W II, 661쪽.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의 부정이라고 묘사된 성욕의 억압, 혹은 단절, 체념을 통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김정현, 「고통의 심층 철학: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68, 1998, 134쪽 참조).

15) A. Schopenhauer, *W.I.* 위와 같음. 363쪽.

우어는 이러한 성욕을 억압, 단절 혹은 체념을 함으로써 세대를 잇는 생식을 중단하게 하는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⁶⁾

3) 탄생에 대한 이성비판

탄생철학은 인간 탄생의 강제와 그 기원에 대한 물음을 통해 죽음, 자살, 혹은 금욕을 다루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은 않는다. 그렇다고 주어진 탄생에 대해 ‘삶의 선물’로서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이 이미 시작된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이며 탄생철학의 긍정적 방향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방향에 바로 한나 아렌트가 서 있다.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은 탄생이 지닌 강제성보다는 오히려 탄생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새로운 시작’라는 강한 자발성을 지닌 의미를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차원으로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실레노스, 험릿, 읍, 쇼펜하우어 같은 탄생에 대한 비판자들이나 실존철학적 무신론자들은 2500여 년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또한 철학사에는 생식의 이성 비판(generative Vernunftkritik)을 작동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칸트인 것이다. 칸트의 탄생에 대한 이성 비판은 탄생의 강제성과 탄생한 자의 시작으로서 자유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책임과 권리와 결함시킨 탄생철학의 실례가 되는 것이다. 아렌트의 탄

16) 쇼펜하우어 입장을 따르는 에밀 시오랑은 “인간의 경솔한 순간과 그로부터 나온 수많은 불행의 순간들 사이의 잘못된 관계 앞에서” 지속되는 인간 삶의 비극을 초래하는 생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금욕을 지지한다(Emile Cioran, *Die verfehlt Schöpfung*, Wien 1969, 13쪽). 그러나 이에 대해 뢰트케하우스는 오늘날 피임 등으로 출산 통제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완전한 포기나 고된 금욕 없이도 탄생을 통해 지속되는 비극을 저지하는 편안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닌지 반문한다(Ludger Lütkehaus, 같은 책, 106쪽).

생성의 철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칸트의 탄생에 대한 비판 철학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칸트는 「변신론에서의 모든 철학적 시도의 실패」에서 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변신론에 대해 비판한다. 변신론자들은 신을 고소하는 욥을 비난하면서 “너무도 힘든 고통”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의 호의”라고 변호한다.¹⁷⁾ 칸트는 거기서 충분히 인생을 살면서 그 가치를 숙고한 건강한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과연 이 지상의 최상의 조건에서조차 한 번 더 인생을 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언적으로 부정한다. 칸트는 우리에게 내려진 삶이 그렇게 소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창조주는 우리의 삶을 소명하였는가라고 신적인 창조주에게 항의한다. 여기서 탄생이 주는 자의 호의로서 선물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칸트에게 생식하는 행위란 “... 한 인격체를 그의 동의 없이 이 세상에 내려놓고, 제멋대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즉 막 아이가 태어날 때의 울부짖음은 탄생의 강제와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무력함, 그리고 격분의 외침이며, 이것은 최초의 결핍된 자유에 항의라는 것이다.¹⁸⁾ 아이의 동의 없이 이 세상에 아이를 내려놓은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일종의 ‘삶의 선물’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선물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칸트는 탄생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유의 스캔들이라고 이

17) I. Kant, *Schriften zur Naturphilosophie*, Hrsg. Wilhelm Weischedel, Werkausgabe Bd IX, 1968, 110쪽.

18) I. Kant,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Akad.-Ausg. Bd. VII. Berlin 1917. 268쪽. 탄생이란 홀로 이 세상에 맡겨진 트라우마이거나 고독이라는 어두운 예감도,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충격의 경험이 아니라, 칸트에게는 오히려 결핍된 자유를 향한 외침이며 요구라는 것이다(Byung-Chul Han, *Tod und Alterität*, Bonn, 2002. 33쪽). 칸트는 인간학적 관점에서 탄생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추론을 하는데, 인간은 탄생이라는 인간 자유의 외침으로부터 이성적 성숙의 과정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돌봄, 훌륭한 교육과 교양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I. Kant, *Anthropologie*, Bd XII, 603쪽).

해한 사르트르와는 다른 방향으로 탄생에 대한 사유의 방향을 제시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자유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탄생을 선택하지 않은 탄생한 자들에게 선택할 여지가 없이 자유가 지닌 자의성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자유란 이 세상을 시작하는 자의 첫 울음과 관계한다. 이 첫울음은 자신의 일방적인 탄생과 자신의 결핍에 항의하는 자유의 외침이며 첫 자발성의 표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첫울음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 외침이라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구분 짓게 한다. 아이는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탄생의 첫 자발적 울음으로 삶의 시작을 알리지만, 이 알림은 바로 아무것도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한 호소이며 태어남의 항의인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러한 무능력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의 첫울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대해 부모와 이 세상에 대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자발적 항의이며 호소라는 것이다. 이렇듯 첫울음으로 시작된 삶의 시작은 자발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뒤따라오는 아이의 모든 시작함의 추구, 즉 사고하고 말하고 행위 하는 과정이 자기 스스로 되어가는 과정이며 또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탄생으로 인해 인간 자유의 역사가 시작 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이 낯선 세상에 들어와 스스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숙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는 얼마나 엄청난 부모의 헌신과 돌봄, 이 세상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가? 이것은 아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헌신적인 보호와 돌봄이 없이는 스스로 시작하는 자로서 자유로운 자로서 성숙해 질

19) 한스 자너에 따르면 인간 탄생의 본질은 시작함으로서의 자유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되어가는 자기 창조를 통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탄생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아이의 열려있는 자유분방함을 통해서 ‘시작함으로서 자유’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Hans Saner, *Geburt und Phantasie, von der natuelichen dissidenz des Kindes*, Basel, 1995, 30-31쪽.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그래서 칸트는 『윤리형이상학』에서 부모의 “생식하는 행위”를 “한 인격체를 그의 동의 없이 이 세상에 내려놓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²¹⁾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부모의 생식 행위로 인해 태어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강조한다. 여기서 부모의 의무란 바로 그들의 결핍된 자유로 인해 미성숙한 자녀가 가능한 한 일찍 성숙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으로서 지체 없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칸트에게서 성숙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만이 스스로 동의 없이 이 세상에 들어온 탄생의 강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탄생은 스스로 시작하지 않은 시작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자율성의 이념이 성숙한 인간의 조건으로서 강조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탄생이 “삶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자는 태어난 자의 실존의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한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란 탄생한 자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며, 동시에 그들이 자유의 능력을 지닌 성숙한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²²⁾ 한스 블루멘베르크는 “... 부모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 부드러움 그리고 배려에 대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부모가 아이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보낸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있게 한다.”²³⁾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란 탄생이 “마치 삶이 선물인 것처럼,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

20) 공병해, 「탄생철학에 근거한 자살의 문제」, 『대동철학』 73집, 50-51쪽 참조.

21)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dVIII, 394쪽, 591쪽.

22) 아이에 대한 부모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의무는 세상에서 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유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실천적이며 법적이며 도덕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Christina Schues, *Philosophie des Geborensseins*. Alber Freiburg, Muenchen, 2008, 45쪽 참조.

23) Hans Blumenberg, *Höhlenausgänge*, Frankfurt am Main, 1989, 74쪽.

하라”라는 정언명령과 같은 것이다.²⁴⁾

3. 한나 아렌트의 시작으로서 탄생성

1) 아우구스티누스와 한나 아렌트

위에서 제시된 칸트의 탄생에 대한 이성비판은 한나 아렌트에게 탄생의 강제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작으로서 인간 자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의 기반은 교부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 창조설에 대한 실존철학적 해석에 근거한다.²⁵⁾ 서양의 성경의 전통 안에서는 탄생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창조이면서 의도적인 신적 행위의 결과물이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이전에 혼돈이 있었거나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창조주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제 2의 창조자인 부모들도 신의 창조를 본받아 자신의 아이들을 창조한다. 인간의 창조는 한편으로는 ‘창조자의 모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것의 생식’이며 탄생’인 것이다. 인간은 신적 창조 행위의 피조물임과 동시에 인간 스스로도 신적 창조 행위를 모방하여 새로운 어떤 존재를 탄생시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성경의 인간 창조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 탄생 철학의 선조가 되었다. 그

24) Ludger Lütkehaus, 115쪽. 이러한 탄생의 강제성에 의한 부모의 의무는 특히 한스 요나스의 존재론적 윤리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에 따르면 탄생의 강제와 탄생의 원인이 되는 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미래 세대에 이르기 까지 취소할 수 없는 비대칭적인 책임 관계를 정당화시킨다. 부모로서의 정언적인 의무란 바로 자식의 탄생의 강제에 기초한 부모의 책임의 윤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책, 81쪽 참조).

25) 아렌트의 『사유 일기』에서 이 부분은 잘 드러나 있다. Hannah Arendt, *Denktagebuch: 1950 bis 1973*, Hrsg. von Ursula Ludz und Ingeborg Nordmann, 2 Bde, München/Zürich 2002. 이하에서 Dt로 표기.

의 탄생철학을 대표하는 문장은 바로 『신국』의 열두 번째 권에 있는 “시작이 있기 위해서 이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인간이 창조되었다”(Hoc(Initium) ergo ut esset, creatus est homo, ante quem nullus fuit)이며, 이 문장은 1500년이 지난 이후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의 “탄생성”(Natalität)의 핵심사유가 된다.²⁶⁾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문장이 지닌 신학적인 통찰을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해석한다.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달리 그 생명체를 초월하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인간은 “그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적 인간’(homo temporalis)이라는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새로운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시작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⁷⁾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적 인간에 대한 해석을 “사실적인 현존재는 탄생함으로 실존한다.”라는 하이데거의 실존철학에서도 발견한다.²⁸⁾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 단지 … 하나의 끝이다. …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끝’은 ‘시작’, 즉 ‘탄생’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자는 비로소 찾고 있던 전체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향 설정은 … ‘일방적인 것’이었다. 현존재는 ‘앞을 향하여’ 실존함과 동시에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을 ‘자신의 뒤에’ 놓는 경우에만 주체가 된다.”²⁹⁾ 여기서 탄생한 현존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탄생과 죽음과 관계하는 시간적 존재의 성격을 지닌다. 하이데거는 출생성을 ‘존재자의 사실’로서 현존재의 실존적인 구조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출생성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현존재’의 특성이 됨으로서 아렌트

26) Ludger Lütkehaus, 26쪽 참조.

27) Hannah Arendt, *Vom Leben des Geistes: Das Denken. Das Wollen*, Hrsg. von Mary McCarthy, Aus dem Amerikanischen von Hermann Vetter, München/Zürich 1983, 42쪽(이후 LG로 표기).

28)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1963(이하에서 SuZ로 표기), 374쪽.

29) SuZ, 374쪽.

의 탄생성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시간적 존재로서 시작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통찰로부터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탄생성”(Natalität)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끌어낸다. 그녀는 플라톤 이래로 철학이 몰두해 온 죽을 운명보다 **탄생함**이라는 사실, 즉 우리 모두가 시작으로 세상에 왔고, 행위가 시작을 착수한다는 의미에서 탄생성을 인간실존의 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의 정치적 사유의 단초로서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 아렌트의 탄생철학은 어떠한 발생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나 아렌트의 박사 학위논문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의 사랑 개념』³⁰⁾ 초판에서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은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지만, 처음 존재하는 시작성의 의미를 담은 탄생성의 철학에 대한 윤곽이 생겨난다. 여기서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 하이데거의 사유의 경계를 넘나들며 탄생을 실존철학의 지평위에서 유동적으로 해석한다. 아렌트는 하이데거의 죽음의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존재와 무”사이의 시간적 존재로 인간 현존재를 규정하지만, 하이데거와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녀는 학위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즉 “무로부터(ex nihilo) 와서 무에게로 서둘러 가는 것”은 두 무(無) 사이에서의 인간 피조물의 삶이다. 여기서 두 ‘무’에 에워싸인, 즉 “과거의 무”와 “미래의 무” 사이에서 연약한 존재는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³¹⁾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아직 없음**으로부터 와서 **이제 없음**으

30) Hannah Arendt, *Dissertation*, “Der Liebesbegriff bei Augustin: Versuch einer philosophischen Interpretation”, Hrsg. und mit einem Vorwort von Ludger Lütkehaus, Berlin/Wien 2003, 49쪽(이하에서 Diss로 표기, 번역본은 『사랑의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유경 옮김, 텍스트, 2015 참조함). 하이데거는 한나 아렌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고 원한다.”(amo volo ut sis)를 인용한다. L. Lütkehaus, *Hannah Arendt/Martin Heidegger: Eine Liebe in Deutschland*, Marburg 1999, 17쪽.

31) Diss, 63-64쪽. 아렌트는 사실적(생물학적)탄생(birth)과 스스로 시작하는 “누구”로 거듭나는 탄생성(Natalität)을 대체로 부분하여 사용한다. 사실적 탄생이 하이데거

로 나아간다.” 여기서 ‘아직 없음’의 무는 **근원**을 나타내고 ‘이제 없음’의 무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³²⁾ 따라서 “아직 없음의 무”로부터 탄생하여 “이제 없음”의 무로 떠나는 죽음은 바로 세계 안에서 탄생한 자가 이 세계로 와서 살다가 죽음과 함께 다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와 시간 그리고 ‘무’ 사이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그 끝은 본래 시작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에 따르면, 결국 삶의 끝은 삶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며 시작을 통해 끝이 있고 그래서 탄생을 통해 죽음이 있다.³³⁾ 삶의 끝으로서의 **죽음**은 다시 그 존재의 근원으로서 탄생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의 근원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이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에게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 안에 있는 “처음에 아직 없음의 근원”은 “세계 안에서 탄생한 자들”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³⁴⁾ 여기서 죽음은 새롭고 근원적이며 시작하는 시선을 열어주며 마치 탄생 철학의 탄생을 돕는 철학적 조산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삶의 끝으로서 죽음에서 결국 삶의 시작을 열어주는 탄생에로의 전환을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이데거의 실존철학과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된다. 아렌트는 『사유일기』에서 죽음의 자유와는 대립이 되는 “내가 주어졌고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은”, 명백히 논증할 수도 없는 탄생을 스스로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³⁵⁾ 그녀는 이 탄생의 강제적 성격의 우위에 바로 인간의 시작으로서 자발성의 개념을 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1951년 초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적인 ‘내 던져진 존재’인 반면에 탄생성은 일종의 제 2의 탄생, 즉 정치적 탄생과 일치한다.

32) Diss, 74쪽.

33) Diss, 76쪽.

34) Diss, 77쪽.

35) Dt 4쪽.

것이 시작하기 위하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는 문장을 처음으로 확실히 인용하면서, 이를 신학적이 아닌 실존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³⁶⁾ 여기서 바로 “시작이 존재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시작은 세계로 왔으며”, 스스로 시작하는 인간의 자발성은 무엇보다도 “누군가”(Jemand), 즉 개별적 인간의 시작함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렌트의 탄생성에 대한 네 가지 기술은 “어떤 것이 시작하기 위하여”, “시작이 존재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함께 시작은 세계로 왔다” 그리고 “유일한 시작을 개시하였다”이다. 여기서 아렌트의 ‘시작’은 ‘스스로 시작한다’라는 ‘순수한 자발성의 개념, 즉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일련의 주어진 것에서 완전히 스스로 시작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 창조에 대한 문장은 그 이후 「이해와 정치」에서 뿐 아니라, 그녀에게 정치철학자로서 성공을 가져다준 1955년 『전체주의의 기원 — 총체적 지배의 요소와 기원』에서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 된다: “도처에서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는 황폐화로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시간을 갖기 전에 이러한 종말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생긴 것처럼 보이며, 그 새로운 시작은 그 자체로 모든 종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본래적인 약속인 것이다.”³⁷⁾ 여기서 인용된 ‘시작’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구원과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아렌트는 시작으로서의 탄생성의 철학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실존철학적 정치적 전망을 보여주며, 특히 「이해와 정치」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창조의 문장을 세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시작과 새로움의 정신으로 해석한다.

36) 이 문장은 왜 소수의 영혼만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래의 신학적 물음과는 무관하게 해석된다.

37) Hannah Arendt, *Element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Antisemitismus, Imperialismus, totale Herrschaft*, München/Zürich 1998(이하에서 T로 표기), 979쪽. 아렌트는 여기서 “역사에서 모든 시작은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으며, ‘끝’이 여전히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 즉 약속”임을 밝히고 있다.

“만약 인간의 창조가 우주 속에서 시작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한다면(그리고 이것이 자유의 창조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인가?) 인간만이 자신이 새로운 시작인 개별적 인간들의 탄생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작들을 기억하는 지속성은 세대의 연속, 결코 끝나지 않는 역사를 보증한다.”³⁸⁾ 그래서 아렌트의 전체주의에 대한 책 이후에 나온 『인간의 조건』부터 후기 저작에 이르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문장은 꾸준히 인용되면서 시초와 시작으로서 탄생성은 지속적으로 아렌트의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으로 사유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실존적 사유는 공동의 세계 속에서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되면서 또한 정치사상의 핵심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새로운 시작으로 탄생의 의미: 기적이다.

우선 탄생성이란 행위로서의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새로운 시작으로서 인간 탄생에 대한 아렌트의 실존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녀는 세계창조설과 연관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니티움”(initium)과 “프린키피움”(principium)의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유한다. “프린키피움”은 창세기가 라틴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에서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니티움”은 오히려 시작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인간은 세계와 함께 동시에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세계 안에서 하나의 시작인 이니티움”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에게 새로운 인간의 등장은 스스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죽음으로 하나의 세계가 죽지만” “각각의 탄생으로 하나의 세계가 시작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치 이 세계가 그와 함께 새로이 발생하듯이” 하나의 시작이며, 이 세계 속에서 인

38) Hannah Arendt, “Verstehen und Politik”, In: *Zwischen Vergangenheit und Zukunft: Übungen im politischen Denken*, Hrsg. von Ursula Ludz, München/Zürich 2002(이하에서 Z로 표기), 125쪽.

간은 “새로 온 자들”이면서 “낯선 자들”인 것이다.³⁹⁾

그래서 아렌트의 인간의 시작(*initium*)으로서 인간의 탄생은 개별적이고 유일하고 불가역적인 “누군가”의 시작이다.⁴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니티움”과 “프린키피움”의 구분에 따르면 ‘누군가’ 이전에 창조된 세계와 신이 존재했으며, 그래서 인간은 이미 규정된 하나의 세계에 들어와 탄생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인간으로서의 ‘누군가’의 시작 이전에는 “아무도 아닌 자”(Niemand)가 존재했으며, 이는 “누군가”(Jemand)와 대립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아무도 아닌 자”인 것이다.⁴¹⁾ 즉 “탄생성” 덕분에 모든 인간은 우선적으로 “한 번 유일하게 새로운 자로서 세상에 나타난다. 탄생이라는 사태로 주어진 이 유일성 때문에 유일한 새로운 것은 마치 모든 인간에게서 다시 신의 창조 행위가 반복되고 증명되는 것과 같다.”⁴²⁾ 그래서 인간이 “시작이 있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그 인간은 최초로 이 세계에서 새롭고 유일한 “누군가”의 시작함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으로 탄생성은 “아무도 아닌 자”였던 자가 “왜 도대체 누군가”로 존재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것은 인간존재의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묻는 물음이며, 이것의 대답은 바로 누군가가 하나의 시작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누군가”는 개별적이며 대체 불가능하며 유일하며 단수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복수로 실존한다. 이 다양함

39) Dt 175쪽. 이러한 모든 새롭게 탄생한 자와 함께 이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등장한다는 사고는 “히브리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리스적으로 사유한 것”이다. 또한 철학의 시작은 바로 세계 안에서의 근원적인 낯섦에 대한 새로운 체험인 ‘놀라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40) VA 459쪽.

41) VA 459쪽. 국가사회주의에서 아이히만 같은 유형의 관료와 기능인은 “아무도 아닌 자”이며, 그런 자가 권력을 잡게 되는 그런 곳에서 시작은 존재할 수 없다.

42) VA 217쪽.

속의 누군가들은 서로 다르면서 각자 자신들로부터 시작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것이다. 시작성과 개별성으로서의 출생성과 함께 복수성도 존재하며, 이 “복수성은 인간들에게 근원적으로 고유한 것이 아니라, 복수성이 지닌 다수성은 또한 다양성으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다⁴³⁾. 그래서 “새로 온 자”로서 이 세상에 오는 다양성을 지닌 모든 개별자에게 “너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지며, 그래서 시작하는 자이며 복수적인 존재로서 모든 탄생한 자는 각자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함으로써 존재의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아렌트는 “누구”라는 질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탄생성의 특성을 ‘기적’이라는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설명한다. “기적은 세계의 운행과 인간사의 과정을 매번 중단시키며 그것들을 타락으로부터 구제한다. ... 그 기적은 결국 출생성, 즉 탄생함의 사태이다. ...”⁴⁴⁾ 여기서 아렌트는 탄생성의 기적을 신의 자식의 탄생으로 비유한다. “기적”은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 일반적으로 탄생하여 인간들과 함께 자신의 탄생함에 의해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 이 세계 안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이 세계를 위해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아마도 복음서가 ‘기쁜 소식’으로 천명한 몇 마디의 단어보다 더 웅장하면서도 간결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한 아이가 탄생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탄생의 의미는 신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원죄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브에 의해 탄생한 자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우구스티누

43) VA 20쪽.

44) 예수의 종교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관계되지만, 예수의 탄생과 탄생성은 오히려 역사의 정치철학적인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죽음과 부활에 사로잡혀 있던 기독교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자의 기적에 의해 탄생의 종교가 되며 탄생의 은총으로 구원하는 종교가 된 것이다(Ludger Lütkehaus, 같은 책, 43쪽).

45) VA 316쪽.

스의 해석과는 다른 것이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나 아렌트의 출생성은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과 결부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 능력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기독교적 시작과는 반대되는 베르길리우스의 유명한 네 번째 목가시에서 다음과 같은 영감을 받는다. 이 목가시는 아이의 탄생과 새로운 세대의 기원에 대한 찬미이지만 신적인 아이의 도래를 결코 예언하지 않으면서도 탄생 그 자체의 신성을 강력하게 만든다. 그녀에 따르면 이 시에서 탄생 그 자체의 신성이란 바로 인간성 자체를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⁴⁶⁾ 한나 아렌트는 아이의 기쁜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시작이 또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인간 안에 머무는 한, 그 신은 모든 것을 구원한다.”라고 말한다. “탄생 그 자체의 신성”은 곧 시작이 지닌 신성이며, 이것은 신적인 시작에서 유래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 스스로의 시작인 것이다.⁴⁷⁾

한나 아렌트의 스스로 시작하는“최초의” 시작으로서 인간의 “탄생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간은 각자가 탄생함을 근거로 해서 이니티움, 즉 시작이면서 세계로 새로 온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시작하는 자발적 능력을 지니며, 그래서 시작하는 자가 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⁴⁸⁾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로서 “자발적”능력이란 칸트적 의미에서 자유의 능력이다. 이 자유의 능력은 인과관계 안에서의 단순한 결과로 환원되거나 모든 사물의 영원회귀로 결정되지 않으면서 칸트적인 자발성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주어진 것의 계열에서 완전히 스스로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⁴⁹⁾ 아렌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작의 개념을 칸

46) Ludger Lütkehaus, 43쪽 참조.

47) 위와 같음.

48) VA 215쪽.

49)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Bd. IV, B561 자발성으로서 자유는 자기로부

트의 자발성으로서 자유(Freiheit als Spontaneität)의 개념과 연결시킨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마치 기적과 같은 특성을 지니지만,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의 시작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규정할 수 있다. 즉 탄생을 통해 세계에서 ‘새로운 자’로서 출현하는 인간은 시작하는 능력을 존재론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인간은 고유한 본성으로서 시작하는 능력을 타고 나왔으며, 이 능력 덕분에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시작들을, 즉 행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렌트의 탄생성에 기반 한 인간 실존에 대한 해명인 것이다.

3) 새로운 시작함으로서 행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인간은 자신의 삶속에서 시작을 보여주는 행위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아렌트에게서 탄생성 그 자체가 지닌 신성이란 바로 시작성과 자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작함으로서의 탄생성은 자유의 가능성으로서 공동의 세계 속에서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에 대해 사유함으로써 세계의 불멸성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자유, 즉 탄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적인 “사실적인 현존재”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는 자신의 사유 속에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는 반면, 복수적 현존재로서 행위 하는 자는 탄생성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모든 행위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한다’(Agieren)를 뜻한다. 사람들은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자, 시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행위 하게 된다.⁵⁰⁾ 그래서 인간의 시작하는 능력으로 탄생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행위

터 시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50) VA 215쪽.

이며, 이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시작을 만들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세계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일하며 다양성을 지닌 존재가 복수적 인간 들 속에서 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탄생 그 자체로부터 나온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⁵¹⁾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말하고 행동 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 참여한다. …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두 번째 탄생과 같다. 이 두 번째 탄생 속에서 우리는 탄생한 존재의 별거벗은 사태를 확인하고,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 우리의 탄생으로 이 세계에 왔던 … 그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스스로 하는 능력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 한다.”⁵²⁾ 탄생성은 강한 의미에서 “스스로 하는” 실존의 열림이며, 이것은 바로 복수적 인간 들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는 일종의 두 번째 탄생인 정치적 탄생인 것이다.

아렌트는 인간의 탄생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Verstehen)를 통해 설명한다.⁵³⁾ 여기서 ‘이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한 환원론적인 연대기적 설명이나 의미연관관계에 의한 해석이 아니다. 이해란 바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 최초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행위의 시작성에 부합한다. 그래서 행위의 시작성이란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규정이나 법전 없이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충분한 근원을 지니고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⁴⁾ 즉 행위가 지닌 최초와 시작성은 그 어떤 척도나 규칙에 종속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특수한 행위를 척도와 어떤 규칙에 종속시켜 평가하게 되면, 행위의 최

51) VA 18쪽.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인간 탄생은 인간세계로 진입하는 사실적 탄생, 행위영역에 등장하는 정치적 탄생, 사유의 무시간성으로 등장하는 이론적 탄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홍원표외,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인간사랑, 2009, 55쪽 참조).

52) VA 216-217쪽.

53) Z 125쪽.

54) 위와 같음.

초와 시작하는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행위의 규범으로서 도덕은 행위의 시작을 결코 예측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말 그대로 비도덕적이다.”⁵⁵⁾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위 한다는 것은 곧 모든 주어진 선입견이나 규칙, 척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것과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것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는 시작하는 것을 통한 최초의 것에 대한 발견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다른 한편으로서 이해함이란 시작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탄생한 자들은 인간사의 모든 계산 가능한 것, 예측 가능한 것을 거부한다. “이미 있었던 것과 일어난 것으로부터 본다면 전혀 예기치 않게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시작의 본성이다. 사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모든 시작과 모든 근원에 내재적이다.”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비개연적인 것, 즉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행위의 특성을 보여주며, 이것은 곧 시작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학, “필연적인 추론의 강제”를 요구하는 진단학과 미래학 등도 바로 “우리 안에서의 이성의 독재”일뿐이며, 행위를 시작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⁵⁶⁾ 그래서 “이 세계가 탄생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 온 자들의 자발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인식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시작성의 정신은 자연과 역사를 이어가는 생식의 과정에서 단순한 “증식”, “다양화”와 “번식”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리스 개념인 “아르케”(arche)와 “아르케인”(archein)이 보여주는 시작과 지배는

55) Dt 520쪽. 아렌트의 이해능력은 『칸트 정치철학 강의』에서 판단의 문제로 넘어간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판단력은 특수한 사례에 직면하여 그 어떤 규칙이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에 의해 그 사례에 대한 새로운 범례를 만들어 판단하는 능력인 것이다. 이것을 아렌트는 칸트의 공통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역, 푸른 숲 2000, 158쪽 참조).

56) Dt 157쪽.

세대를 이어나가는 부모와 자식과의 시작과 지배관계에도 해당된다. 부모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누군가로 시작하는 자로 태어나서 또 다른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누군가를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탄생시킨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이미 주어진 하나의 세계와 시대 속에 새롭게 기적처럼 “끼어든 존재”이고 “하나의 시작의 시작”⁵⁷⁾이며, 이 시작은 결국 단지 또한 다른 시작의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새로 탄생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자발성, 즉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면 세계의 운행은 결정론적으로 규정되고 예측되고 말 것이며, 자연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시작성의 정신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정치에서 모든 새로운 것은 탄생으로서 행위의 시작성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하는 혁명은 새로운 탄생들이고, 이 탄생들은 시대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성공한 혹은 실패한 모든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는 정치적 열정은 인간이 실제로 ‘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하나의 시작을 만드는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⁵⁸⁾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혁신과 개혁은 원래의 것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탄생이다. 그래서 구체제의 부활이나, 독재, 전체주의 특히 인종주의는 역사 속에서 기적처럼 진행되는 탄생과 행위능력을 살해하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강제에 저항하는 고유한 대항 원칙이 시작이며,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작이 있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그 시작 안에 자유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다”.⁵⁹⁾ 그래서 혁명과 건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탄생성인 행위의 시작성이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다.

57) Z 14쪽.

58) Ludger Lükehaus, 같은 책, 56쪽 참조.

59)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느 정도 혁명의 신학자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발견되는 것이다(Dt 157쪽).

4. 결론

탄생철학은 인간의 ‘죽을 운명’ 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에 탄생한자로서의 운명을 인간 실존의 근본 조건으로서 사유한다. ‘탄생으로 되돌아감’의 사유는 탄생이 지닌 강제성과 탄생한자 스스로 시작하는 자유사이에서 긴장과 균열을 일으키는 실존철학적 주제들에 대해 몰두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탄생한 자가 자신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 제기하는 물음으로서 인간 자유와 삶의 고통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는 탄생의 강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칸트의 탄생에 대한 이성비판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의 첫 시작을 알리는 태어난 자의 첫물음은 이 낯선 세상에 태어남에 대한 항의이며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결핍된 자유에 대한 호소인 것이다. 그래서 탄생에 뒤따라오는 아이의 모든 시작의 추구로서 말하고 행위 하는 과정이 스스로 삶을 시작하는 자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한 아이의 권리와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탄생의 첫 시작을 자유의 표현이라고 한 칸트의 사유는 이미 시작된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한나 아렌트의 탄생철학의 전제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작으로서의 인간창조에 대한 신학적 통찰이 한나 아렌트의 독창적인 실존적, 정치 철학의 지평위에서 시작성의 철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논의해 볼 수 있었다.

결국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서 제시된 탄생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실존의 해명은 바로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공동의 세계 속에서 행위를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행위를 시작하는 자는 “누군가”로서 개별적이며 유일하며 또한 단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복수로 실존하며 세계에 참여하는 자이다.⁶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의 창조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나 계산가능성, 그리고 결정론을 부정하는 마치 기적처럼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오늘날 아렌트의 탄생성의 철학은 탄생으로 인한 행위의 능력이 곧 인간의 실존의 의미를 실현시켜주며,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의 정치적 세계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작의 정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 생명의 출발과 관련해서 인공수정, 인간 복제 등과 같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이 다양한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지지만, 인간 탄생의 근본 주제에 대한 철학사적, 실존철학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 따른 인공수정 등의 생식과 출산기술의 발달은 마치 제작자의 기술처럼 인간 탄생의 강제성과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⁶¹⁾ 이러한 문제의식은 특히 탄생철학에서 탄생한 자의 입장에서 탄생성이 지닌 스스로 시작함의 정신에 대한 사색을 요구한다.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 탄생의 기술적 과정은 또한 공동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탄생성의 의미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도처에서 탄생성의 정신이 무차별적으로 소비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논문은 인간 실존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스로 시작함이라는 탄생성의 의미를 검토해봄으로써 우리 시대의 시작의 정신으로서 탄생철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60) 한나 아렌트 철학에서 인간 탄생은 인간세계로 진입하는 사실적 탄생, 행위영역에 등장하는 정치적 탄생, 사유의 무시간성으로 등장하는 이론적 탄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홍원표외,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인간사랑, 2009, 55쪽 참조).

61) 인간 기술공학이 인간 탄생의 강제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논의는 페터 슬로터다익,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 이진우·박미애 옮김, 한길사, 2004, 71-72쪽 참조.

참고문헌

- 공병혜, 「탄생철학에 기초한 자살의 문제」, 『대동철학』 73, 2015.
- 김정현, 「고통의 심층철학: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68, 1998.
- 손봉호,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출판부, 1996.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파우스트』, 정서웅 역, 서울: 민음사, 2015.
- 페터 슬로터다익, 『인간농장을 위한 규칙』,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04.
-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이진우 역, 니체전집 2, 서울: 책세상, 2005.
- 한나 아렌트 저. 『인간의 조건』, 이진우, 태정호 역, 한길사, 1996.
- 한나 아렌트 저.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역, 푸른 숲 2000.
- 한나 아렌트 저. 『한나 아렌트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유경 역, 텍스트, 2015.
- 홍원표외, 『한나 아렌트와 세계사랑』, 인간사랑, 2009.
- Arendt, H., “Verstehen und Politik”, In: *Zwischen Vergangenheit und Zukunft: Übungen im politischen Denken*, Hrsg. von Ursula Ludz, München/Zürich 2002.
- Arendt, H., *Denktagebuch: 1950 bis 1973*, Hrsg. von Ursula Ludz und Ingeborg Nordmann, 2 Bde, München/Zürich 2002.
- Arendt, H., *Dissertation*, “Der Liebesbegriff bei Augustin: Versuch einer philosophischen Interpretation”, Hrsg. und mit einem Vorwort von Ludger Lükheaus, Berlin/Wien 2003.
- Arendt, H., *Elemente und Ursprünge totaler Herrschaft: Antisemitismus, Imperialismus, totale Herrschaft*[], München/Zürich 1998.
- Arendt, H.,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Zürich, 1981.
- Arendt, H., *Vom Leben des Geistes: Das Denken. Das Wollen*, Hrsg. von

- Mary McCarthy, Aus dem Amerikanischen von Hermann Vetter, München/Zürich 1983.
- Blumenberg, H., *Höhlenausgänge*, Frankfurt am Main, 1989.
- Cioran, E. M., *Die verfehlt Schöpfung*. Suhrkamp, 1969.
- Han, B. C., *Tod und Alterität*. Fink, 2002.
- Heidegger, M.,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Tuebingen. 1984.
- Kant, I.,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 Akad.-Ausg. Bd. VII. Berlin 1917.
- Kant, I., *Die Metaphysik der Sitten. Werkausgabe*. Band VIII. Frankfurt aM 1977.
- Kant, I., *Werke in zehn Bänden*, Hrsg.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1968.
- Lütkehaus, L., *Hannah Arendt/Martin Heidegger: Eine Liebe in Deutschland*, Marburg 1999.
- Lütkehaus, L., *Natalität: Philosophie der Geburt*. Kusterdingen, Vol. 47. Graue Ed., 2006.
- Saner, H., *Geburt und Phantasie: von der natürlichen Dissidenz des Kindes*. Basel, 1995.
- Sartre, J. P., *Das Sein und das Nichts: Versuch einer Phänomenologischen Ontologie*, Hrsg. Traugott König, Deutsch von Hans Schöneberg und Traugott König, Reinbek 1995.
- Schopenhauer, A.,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II*. Band IV, zweister Teilband, in; Zürcher Ausgabe, Werke in zehn Bände, Zürich, 1977.
- Schües, C., *Philosophie des Geboreneins*. Freiburg/Muenchen, 2008.
- Sloterdijk, P., *Zur Welt Kommen, Zur Sprache Kommen Frankfurter Vorlesungen*. Ffm., 1988.

**Philosophy of Natality and the Meaning of Beginning
in Hannah Arendt
(Philosophie der Natatität und der Sinn des Anfangs bei
Hannah Arendt)**

Kong, Byunghye (Chosun Univ.)

Die Geburt ist als der Anfang des Lebens die existenzielle Bedingung des Menschen. Aber Fast zweieinhalb Jahrtausende lang hat seit Platon das abendländische Denken verkündet, Philosophieren heiße vorab sterben zu lernen, Philosophie sei Todesphilosophie. Aber zum Beginn des dritten Jahrtausendes ist der Philosophie angesichts der Machtergreifung der Biowissenschaften und der generative Medizintechnologie ein Paradigmenwechsel von Sterblichkeit zur Gebürtlichkeit, der Thanatologie zur Philosophie der Geburt abverlangt. Bei der Philosophie der Geburt handelt es sich um die Seinsfrage des Geborenen und die Spannung zwischen der Determination (Diktat) der Geburt und der initiativen Freiheit, die Beziehung zwischen der Elternpflicht und Kindrecht. Im Mittelpunkt des Aufsatzes steht die Natalität der Philosophie Hannah Arendts. Ihr Philosophie pointiert vor allem die Natatität als die Spontanität der Freiheit und als Anfänglichkeit, als Initialität. Die Spontanität der Freiheit, eine Reihe von Begebeheiten ganz von allein anzufangen, wird von der Kritik der gerativen Vernunft Kants übernommen. Augustinus' Satz aus dem zwölften Buch der Civita Dei wird als der Ausgangspunkt ihrer existenziellen Bestimmung der Natalität interpretiert, der Mensch sei

geschaffen, damit ein Anfang sei. Jede Geburt ist eine Neugeburt, jedes Kind ein Anfang, der selbst etwas Neues anfangen kann. Der Paradigmenwechsel zur Natalität zu leisten ist das philosophische Gebot der heutigen Stunde. Denn Gen-medizinische Technologie dominiert die Determination der Geburt und Machentechnologie kontrolliert den Bereich des generativen Handens, damit die Fähigkeit des freien Handelns in dem alltäglichen Lebens allmählich vergehen wird. Mein Aufsatz kann durch die Reflexion der Philosophie der Geburt und des Anfangs einer Möglichkeit widmen, die Aufgabe der Philosophie in unserem Zeitalter zu orientieren.

Key words: Philosophy, birth, natality, beginning

공병혜 E-mail: bhgong@Chosun.ac.kr

투 고 일	2017년 03월 29일
심 사 일	2017년 05월 02일
게재확정	2017년 05월 10일